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시범록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적게—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고객적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며 내 마음에 극락이 있다.
〈화엄경〉

지면 안내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고형곤박사 특별대담 3
경전 속 수행법구 4
재가자들의 수행방법 5
46선지식 생활법문 6·7
불법을 세계로 8
현대불교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끄는 6인의 보살.
송담스님 지상법석 9
타종교인이 만난 불교 10
불교를 아끼는 타종교인들의 불교 인연 이야기.
포교1번지 '조계타운' 15
불교골 조계사 주변의 애환과 40여 불교관련 점포와 사람들.
독자 설문조사 23
도천스님의 하루 27
40여년간 두문불출 · 묵언정진. 86세 고령에도 밤낮없이 운력에 몰두하는 태고사 도천스님의 하루.

지난 1년동안 성원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95. 10. 15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문화재 · 환경보호 개발보다 우선" 62.6%

현대불교 창간 1주년 불자 지자체 단체장 67명 설문조사

지역개발이나 문화재 및 환경보호나. 고속전철의 고도 경주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불자 지방자치단체장들 대다수는 문화재나 환경보호가 지역개발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자체 시행 1백일에 맞춰 전국의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불지 단체장 67명(조계종 총무원 집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명의 응답자 가운데 62.6%가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 설문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역개발과 불교 문화재 보존 또는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화재나 자연환경이 지역개발에 우선해 보호돼야 한다(43.8%) △환경보호가 우선돼야 한다(18.8%)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37.4%)로 나타나 62.6%의 단체장들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환경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문화재의 보고 경주의 고속전철 통과 여부를 계기로 정부 관련부처, 교계, 학계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히 맞서, 마치 지역개발이 문화재 및 환경보호와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작용하는 것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첨병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으로 나타나 향후 문화관련 지역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영란 기자〉



목어

"헝~"
"대풍아"

인기정상을 달리고 있는 TV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한 소년과 청년이 서로를 부르는 이 간단한 대화가 자주 시청자의 폿등을 사른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혀 남남이면서 친동기 이상으로 지내는 그들에게는 눈꼽만큼도 가식이 없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다. 그래서 보는 이들은 감동하고 눈시울을 적시나 보다. 이 드라마에서는 가슴이 저리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을 가꾸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한다. 인기 정상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가을이 깊어가는데…

사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현대인들의 가슴이 옛같지 않다 해도 아직은 진실을 갈망하고 아름다운 사람앞에 순일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다'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 두권의 책 제목이 서로 응답하는 양 신문광고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런 말과 함께.

'당신한테는 이사람이 있는가? '나는 너다' '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와 나의 상을 세우지 않고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일때 그것은 사랑이고 자비이다. 그럴때 사람들은 감동한다.

너와 나는 물론 주위의 보는 이들 까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나는 누구를 아니 얼마나 많은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자문해 보자. 그 자문은 어디에도 해당된다. '현대불교'는 1년간 독자를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1주년 생일을 맞아 1단짜리 기사 한줄에도 감동을 담아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길을 넓혀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본다.

법답게 살면 저절로 나는 너가 될테니까.

본지 창간 1주년 특집 28면 발행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개통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교계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독자적인 전산정보망을 구축, 1차로 전자게시판 「부다피아」(Buddhapia BBS)를 개설하고 현대불교 전자신문, 영상멀티미디어 마당, 온라인 설법방등 을 선보입니다.

부처님의 땅-부다피아로 명명된 현대불교신문의 전자게시판에는 현대불교에 게재된 모든 기사 및 문화 · 학술관련 교계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큰스님들의 설법방, 전자메일, 대화방등이 설치돼 누구라도 전화망을 통해 접속 이용이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24 · 25면〉

특히 「부다피아」는 교계 최초로 動畵像제공 가능도 갖추었으며 CD롬타이틀제작 및 주문형비디오(VOD) 취급도 가능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체제로 운영됩니다.

動화상 · 온라인 설법방등 설치
VOP · CD롬 타이틀 제작도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곧 개설

「부다피아」는 또한 인터넷과 접속,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세계 불교사이트와의 연결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부다피아」 개통에 따라 멀티미디어 체제에 한발 다가선 것을 계기로 장차 한국을 대표할 불교종합정보센터로 발돋음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이같은 노력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구시대적 포교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매체포교의 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연회 일정

1. 일시 : 10월 16일~21일 하오 3시~7시
2. 장소 : 본사 1층 책방 여시아문
3. 시연내용
   - 부다피아 전자게시판 - 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
   - 현대불교전자신문 서비스 - 온라인 설법마당
4. 부다피아 설명회 : 월 · 수 · 금(하오 3시~4시)

※ 문의전화 (02)722-4162~3

10월 15일 창간 1주년

현대불교신문사

